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88)(11/12/2021)

제 3 권 내적 위로

제 3 장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여야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주의하지 않음, 4 절

롬 1:16 -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마 24:35 -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계 2:23 -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마 5:6 -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마 25:21 -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4. 하지만 영원토록 변치 않을 복된 일이나, 헤아릴 수 없이 큰 상급이나, 지극히 큰 존귀함과 영원토록 지속될 영광을 위한 일을 할 때에는,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어도, 하기 싫어서 게으름을 피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얼마나 서글프고 통탄스러운 일인가. 그러므로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게으른 종들아, 부끄러운 줄을 알라. 그들은 네가 생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열심으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너는 진리를 기뻐하지만, 그들은 헛된 것들을 더 크게 기뻐하고 있다. 그들의 소망은 종종 그들을 실망시키지만, 나의 약속은 아무도 실망시키지 않고, 나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빈손으로 돌아가는 법이 없다. 사람이 나의 사랑 안에 끝까지 신실하게 거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가 약속한 것을 그 사람에게 줄 것이고, 내가 말한 것을 그 사람에게 이룰 것이다. 나는 모든 선한 자들에게 상급을 주는 이이고, 내게 헌신한 모든 사람들을 시인하는 이이다.

말씀과 해설:

우리는 나의 영혼에 관계된 일, 생명에 관계된 일, 천국에 관계된 일,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일에 열과 성을 다하는가? 아니면 육신의 정욕, 욕심, 이기적이며 사사로운 유익, 세속의 쾌락,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인간적인 부귀영화와 즐거움에 우리의 정열을 불태우는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위해 수고하는지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정말 무엇을 찾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지를 말씀하셨다. 사 55:1-2 - 1.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들고 들을 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영적인 가치, 하나님의 것, 하늘 나라를 위해 에너지를 쓰고 열정을 쏟는 사람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서도,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 않으며, 언제나 하늘 나라를 소망하며 하늘에 보화를 쌓기 위해 애쓴다.

마 6:19 -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어떻게 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할 때,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주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때,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주님의 가치를 실현할 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내려 놓고 포기하며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릴 때, 바로 그 때 우리는 하늘에 보화를 쌓게 되지 않을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는데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질문한 부자 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막 10:21 -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때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막 10:22).

이 청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으나 자신의 의,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지킨 것이었다. 아울러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정신은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고 하신 것은 그가 사랑이라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진실되게 온 마음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재물을 내어 놓는 것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착하는 어떤 것을 내려 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을 포기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어 놓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상급은 하늘에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근본적으로 추구하며 무엇을 위한 삶을 사는지 깊이 생각하게 한다. 부자 청년처럼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의 본질은 놓쳐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고, 매여 있는 경우가 많다. 부자 청년은 주님의 말씀의 본질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고, 주님도 놓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자기의 안위를 구했고,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보화를 쌓고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재물을 내어 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다는 말을 통하여 그 청년이 자신의 재물에 집착하고 있었음을 넌지시 보여준다. 예수님은 주님을 온전히 따를 것을 말씀했다. 이것이 바로 보화를 하늘에 쌓는 비결 중의 하나이다.

나는 지금 어디에 나의 삶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쏟고 있는가? 나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부자 청년처럼 이 땅의 어떤 것에 집착하고 매여 있음으로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 못하며,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오늘도 헛되고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와 본질을 추구하며, 보화를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으며,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전쟁, 가난,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 당하는 수많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점점 심각해 지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내전 상황으로 인해 철수 준비를 하시는 이기형 선교사님과 다른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